

# NEWS

2025년 4월 4일 금요일

## 전남도, 여수 울촌 신규 산업단지 조성 '착착'

### 시, 일자리 지원사업 설명회 50억 규모...8일 광주상의회

광주시는 오는 8일 오후 2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가진 '자동차·뿌리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7개 사업 50억 규모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고,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테크노파크·광주디자인진흥원·광주경제진흥원·광주경제진흥원·광주경제진흥원 등 6개 사업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통합설명회는 수행기관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통합서비스와 미래내일일경험 등 기업 지원 연계사업도 함께 안내해 기업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3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뿌리산업 플러스 일자리사업'과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은 지난달 24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비영리단체 152곳 활동 지원 9일부터 단체별 보조금 신청

광주시는 올해 공익활동 지원사업 대상으로 총 152개 단체를 선정, 12억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1월6일부터 2월7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177개 민간단체가 신청했으며 관계부서 검토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52개 민간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전년도 지원액 및 성과 평가, 단체 역량,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지원 단체를 확정했다.

선정 단체는 광주시 누리집(시정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단체별 지원 금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은 오는 9일부터 단체 등록한 담당부서에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선정된 단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연중추진상황을 점검해 공익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동부권 산업용지 부족해소...미래 신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소재 생산 등 친환경 분야 진출 지원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수 울촌 대규모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업시행자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사업을 착공해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1단계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정장 조성 중이다.

산업단지 명칭은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 단지다.

이 사업은 여수시 울촌면 준설토 투기장 일원에 총 6530억원을 투입해 332만㎡ 규모로 미래 신산업 중심의 물류, 제조 거점 단지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다. 조속한 부지 공급을 위해 2단계는 2029년, 3단계는 2030년까지 완료한다.

1단계 부지에는 벌써 GS칼텍스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부지에 수소 생산 및 발전사업, 이산화탄소 포집은 물론 수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수소 생산 및 발전, 이산화탄소 포집·화학, 설비 공장 등을 3년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수소 생산량 수십만 톤, 액체화물 수백만 톤 규모의 신규 물동량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여수광양항 물동량 증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여수지역 고질적인 산단 용지 부족 문제 해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셈이다.

최근에는 여수 석유화학 위기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해 36개 사업 5조6000억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재편과 위기에 대

응하고 있다. 또한, 융복합 물류 단지에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투자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소재 생산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한 친환경 분야 등에 진출해 활로를 찾도록 지원한다. 특히, 광양만권에서 운영 중인 기업들이 유망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을 비롯해 신산업 분야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들을 발굴해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과 기

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근 여수 국가산업단지 간 공용 파이프랙 설치는 물론 길이 205m, 왕복 6차로 연결 교량을 2028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어서 투자 기업 유치 환경 조성해 비교우위에 있어 필요한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울촌 융복합 물류 단지 조성은 미래 신산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기지 성장 사업이다"며 "여수광양만권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 등에는 산업용지 적기 공급으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대응하는 신산업 투자 유치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3일 제주시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헌화·분향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 강기정 광주시장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유족 위로 유족회와 간담회...“4·3 정명 운동 함께 할 것”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5·18과 4·3의 평화 연대를 다짐했다.

강 시장은 3일 오전 10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 유족 등을 위로하고, 헌화·분향했다.

강 시장은 "광주와 제주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아픔의 역사가 있고, 한강 작가는 5·18과 4·3을 다시 한번 이어줬다"며 "4·3의 이름을 찾는 정명(正名)과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어 "5·18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들이 손을 잡아준 덕분에 인권 평화의 상징으로 보편성을 갖게 됐다"며 "많은 이들이 평화연대를 통해 광주를 민주주의 도시로 꽃피워준 만큼, 이제 광주가 그 고마움을 되돌려드려야 할 때이고, 이는 4·3과의 평화연대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참혹한 아픔인 4·3을 딛고 제주공동체를 이뤄낸 유족들의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77년이 흘렀음에

도, 4·3은 여전히 아픔이 없고 생존희생자 등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진상규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같은 활동을 통해 4·3에 이름 붙이는 정명이 필요하고 광주는 이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추념식에 앞서 4·3 희생자이고 양천중씨의 딸 양두영 어르신 등을 만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고 양천중씨는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75년여 만에 유해가 발굴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들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강 시장은 첫날인 2일 제주 4·3평화기념관 유족회 사무실에서 '한강이 이어준 4·3과 5·18 광주→제주 동행 간담회'를 열어 '평화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철강산업 위기극복 민관 협력 본격화

### 도, 협의체 출범...미국발 관세·중 철강 덩핑 대응

전남도는 3일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전남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서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전남도와 광양시·순천시·전남도의회, 유관기관, 기업인 등 총 28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정책 자문, 기업 애로 및 규제 발굴, 정부 공동 건의,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 철강산업은 지역내총생산의 23.1% (2022년 기준), 전국 철강 생산량의 34.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남 수출의 17.9% (2024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 탈탄소 전환 가속화, 중국산 저가수입재 확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 복합적인 위기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

작했으며, 중국산 철강재는 후판 기준 수입단가가 2021년 톤당 940달러에서 2024년 659달러로 약 30% 하락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전략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 전담 TF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기대응 전략 및 규제 개선'과 '인프라 조성 및 인력양성'의 두 개 분야로 구성되며, 전남도, 시군, 광양경제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테크노파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기업 애로 발굴과 규제개선, 국가산단 중심 인프라 확충, 기술인력 양성, 투자유치 협력 등 지역 철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선제적 산업위기 대응을 위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0억 원 규모의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만권 소재 중소·중견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맞춤형 건설 등 지원한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전남도는 3일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서 민관합동 '전남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 발족식을 가졌다.

# 담장, 디자인에 취하라!

## — 벽돌담의 품격을 더하겠습니다



**본사공장** 전남 완순군 이양면 약포로862(포평리 629)  
Tel. 061)373-9566-7 Homepage. www.jtbl.co.kr

- ✓ 자연석같은 전통 사리석문양 '풍경벽돌'
- ✓ 세계최초 안골조립식 문지블럭 '씨중벽돌'
- ✓ 조립, 열탈 등 별도의 접착재가 필요없이 셀프시공이 가능한 '기어블럭'
- ✓ 담장 조립 각종 전용인테리어블럭

**신제품**

- 기어블럭(조립식)용 PCT국제특허출원



풍경벽돌레제형 담장



원스텝 담장



한식기와형 담장



세스블럭 담장



기어블럭

